

날짜: 5786 년, 8 월 28 일 (2025 년 11 월 19 일)

토라 문: 족보

주제: 이삭의 성공

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(창 26:16), "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, '너는 우리에게서 떠나라.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성하니라.'" 그러나 미드라시는 아비멜렉의 이 말이 단순히 이삭의 강성함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, **그의 부가 블레셋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항의의 의미**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즉, **"우리에게서 떠나라, 너는 우리로 인해 부유해졌기 때문이다!"** 아비멜렉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"네가 부자가 된 그 모든 재산—그것이 결국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?" 다시 말해, **"네 부는 우리 땅의 자원에서 나왔고, 네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돌아왔을 것이다.** 네가 오기 전에는 양 한 떼 밖에 없었으나, 지금은 수많은 떼를 거느리고 있지 않은가."

주석가들은 **אֶצְמַטָּא מִמֶּנּוּ(atzamta mimennu)**의 기본 의미를 비교적 표현인 "너는 우리보다 강해졌다"로 이해합니다. 그러나 미드라시는 이를 **"너는 우리로 인해 강해졌다"**로 재해석하며, 비교가 아닌 **원인·결과의 관계**를 강조합니다. **오헬 야아코브(Ohel Yaakov)**는 이 해석의 차이를 더욱 확장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: 성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. 하나는 느리고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쌓여 가는 성공, 다른 하나는 기적처럼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성공이다. 천천히 이룬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"나도 저렇게 했으면 할 수 있었겠다"고 생각하게 하여 **시기와 경쟁심**을 불러일으킨다. 반대로 **급격한 성공**은 "저건 신의 은혜나 운이겠지"라고 치부되어 시기를 덜 유발한다.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삭의 부가 **땅이라는 환경적 요인**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.

탈무드 산헤드린 91a에서 라반 감리엘은 이 세상의 물질적 번영이 **공로와 무관할 수 있음**을 강조합니다. 의인은 고난을 겪고 악인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원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품었던 생각과 같았습니다: "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단지 이 지역이 주는 이점을 활용했기 때문이야." 그러나 **그들을 떠난 뒤에도 이삭이 계속 번성하자**, 그제서야 그들은 그의 번영이 **영적·형이상학적 근원**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.

조하르(1:137b)는 이 사건을 더 깊은 신비적 차원에서 해석합니다. 이삭은 **기꺼라(gevurah, 엄정·힘)**의 속성을 대표합니다.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물질적 번영은 **이 세계에 나타난 자비**인 것입니다. 블레셋 사람들은 이 두 면모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그들은 외적 조건만을 보고 **영적 근원**을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의 첫 반응은 **시기 → 추방**이었고, 그들의 인식이 바뀐 뒤에는 **존경 → 조약 요청**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.

미드라시 탄후마(톨도트 5)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조약을 요청한 것은 정치적·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**존재론적 이유**였다고 말합니다. 그들은 이삭이 **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통로가 된 인물**임을 보았습니다. 그가 가진 '거룩한 임재'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와의 조약은 단순한 평화 조약이 아니라, **그 거룩함에 연결되려는 시도**였습니다.

창세기 26:27-28 에서 이삭이 묻습니다: “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쫓아냈는데,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?” 그들은 대답합니다: “YHWH 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.” 라시(Rashi)는 이를 **성경에서 드문 장면**이라고 가르칩니다— 원수들이 패배뿐 아니라 **자신의 잘못까지 인정하는 장면**이기 때문이죠.

메암 로에즈(창 26:13-14)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이유가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**그의 영적·도덕적 영향력 때문**이었다고 말합니다. 그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**쾌락 중심적 문화에 대한 도전**이 되었고, 이삭의 삶이 그들의 양심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. 즉, 그들은 **물질적 불균형뿐 아니라 영적 대비도 거부한 것**입니다.

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: 언약적 축복은 **오해와 시기를 불러일으키고**, 추방은 결국 **신적 확증과 화해**로 이어진것입니다. 이삭이 그랄에서 겪은 사건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 겪어온 경험을 미리 보여줍니다— **번영 → 의심 → 추방 → 정당성의 회복**. 미드라시·탈무드·조하르의 관점을 함께 보면,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**하나님의 섭리, 인간의 시기, 영적 위대함의 본질**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것입니다.

shalom.